

『사고전서』의 검색과 활용에 대한 연구

A Research on Search and Utilization of *Sagojeonso*

韓美鏡 (Han, Mi-Kyung)*

◁ 목 차 ▷

- | | |
|-----------------------------|------------------------------|
| 1. 서 언 | 3.3 「사고전서」 미수서적 목록 |
| 1.1 연구의 목적 | 4. 20세기-현재의 「사고전서」
검색과 활용 |
|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4.1 인쇄매체 |
| 2. 「사고전서」의 간행과 보존 | 4.2 전자매체 |
| 2.1 「사고전서」의 간행 | 4.3 한국의 검색과 활용 |
| 2.2 「사고전서」의 보관과 보존 | 5. 결 언 |
| 3. 18-9세기의 「사고전서」 검색과
활용 | <참고문헌> |
| 3.1 「사고전서」 목록류 | |
| 3.2 「사고전서」 수록서적의
철취와 보완 | |

< 초 록 >

『사고전서(四庫全書)』는 중국 청대 건륭(乾隆) 연간에 칙명에 의해 만들어진 대규모 총서(叢書)이다. 본 연구는 『사고전서』의 검색 및 활용 고찰을 목적으로 『사고전서』 간행과 보관 및 보존을 개괄적으로 살피고, 다음과 같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첫째, 18-9세기의 『사고전서』 검색과 활용의 경우 1) 『사고전서』 목록류, 2) 『사고전서』 수록서적의 철취와 보완, 3) 『사고전서』 미수서적 목록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둘째, 20세기-현재의 『사고전서』 검색과 활용의 경우 인쇄매체와 전자매체 및 한국의 『사고전서』 검색과 활용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인쇄매체의 경우 1) 사고전서의 개술, 2) 제요의 보정, 3) 목록의 연구, 4) 고증과 판본연구, 5) 급행과 준목서목, 6) 검색정보원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며, 전자매체의 경우 오프라인 전자매체와 온라인 전자매체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要語: 건륭, 검색, 사고전서, 활용

*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강사(mkhank@korea.com)

접수일: 2012년 12월 5일 최초심사일: 2012년 1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2년 12월 17일

<ABSTRACT>

Sahgojeonseo is a series of books which was made by royal order in the year of Keonryung of Ching days. For the purpose of search and utilization of *Sahgojeonseo*, the publication, storage, and maintenance of *Sahgojeonseo* was generally examined and the following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through this study.

Firstly, in the case of the 18 - 9th centuries of search and utilization of *Sahgojeonseo*, th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distinction between 1) *Sahgojeonseo* catalogues 2) withdrawal and supplementation of books listed in *Sahgojeonseo* 3) unlisted book catalogue of *Sahgojeonseo*.

Secondly, in case of the 20th century - the present time of search and utilization of *Sahgojeonseo*, th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distinction between printed media, electronic media and search and utilization of Korea's search and utilization of *Sahgojeonseo*. In the case of printed media, th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distinction between 1) explanation of *Sahgojeonseo*, 2) revision to *Jaeyo*, 3) study on catalog, 4) study on historical research and kinds of books, 5) catalogues of prohibited books and titles and 6) source of information search. In case of electronic media, th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on-line and off-line electronic media.

Key words: Keonryung, *Sahgojeonseo*, search, utilization

1. 서 언

1.1 연구의 목적

「사고전서」는 중국 청대 건륭(乾隆) 연간(1736-95)에 칙명으로 만들어진 총서(叢書)이다. 북방사각과 남방삼각 및 한림원의 부분을 포함하여 총 8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청 정권에 저촉되거나 정통 유가사상과 입장이 상이한 저술 및 통치자가 중시하지 않는 과기, 수공업 및 사곡류(詞曲類)의 작품은 모두 배척되거나 일부는 금훼(禁毀)되었다. 건륭 이후 청말 100여년간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서화의 전입으로 신서도 대량으로 전입되어 정리와 보완 등이 필요해지면서 「속수사고전서(續修四庫全書)」 사업으로 이어졌고, 또한 제목만 기술된 「존목(存目)」도 총서로 새로이 간행되었다.

오늘날 「사고전서」와 「속수사고전서」 및 「사고전서존목총서(四庫全書存目叢書)」 이들 3종은 내용, 권질 등에 있어 중국고대 문자기록 이후부터 1911년 이전까지의 주요전적을 대부분 다룬 중요한 원시정보원이 되었다. 또한 20세기 들어 영인본 작업과 디지털 작업 그리고 미수서목(未收書目)이나 훼손서목 외에 목록서와 색인서 등의 다양한 참고정보원들이 간행되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전서」의 검색과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고전서」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사고전서」를 대상으로 간행 또는 내용 분석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경우 분류 및 목록학적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 이외에 목록서나 색인서와 같은 검색관련 연구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 개별적인 관련 문헌의 소개와 분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사고전서」 간행 외에 보관 관련 역사적 단계와 현 보존 상황을 살피고, 이후 간행되어온 18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역사적 문헌과 검색정보원을 조사 고찰하여 다양한 「사고전서」 검색과 활용에의 일조를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연구의 방법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전서」 간행과 보관 및 보존의 경우 문헌연구와 역사연구방법을 통하여 사고전서관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수집서적의 범위, 참여인적자원의 구성과 역할, 분류와 목록, 각 사고전서관의 소장수량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사고전서」의 검색과 활용은 크게 시기적으로 18-9세기와 20세기-현재로 구분하여 문헌연구와 역사연구 및 메타스터디와 인터넷조사방법으로 진행하고 자 한다. 대표적인 역사적 문헌과 현대의 인쇄매체 및 전자매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일부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원의 누락이 있을 수 있다.

셋째, 18-9세기의 「사고전서」의 검색과 활용의 경우 「사고전서」 간행 당시 또는 간행 이후의 1) 「사고전서」 목록류, 2) 「사고전서」 수록서적의 첩쇄와 보완, 3) 「사고전서」 미수서적 목록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다만 「사고전서」의 영인사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넷째, 20세기-현재의 「사고전서」 검색과 활용의 경우 인쇄매체와 전자매체 및 한국의 「사고전서」의 검색과 활용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자한다. 인쇄매체의 경우 1) 사고전서의 개술, 2) 제요의 보정, 3) 목록의 연구, 4) 고증과 판본연구, 5) 금훼와 존목서목, 6) 검색정보원 등을 범위로 하며, 전자매체의 경우 주로 「사고전서」 원문 검색을 위한 오프라인 전자매체와 온라인 전자매체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국의 「사고전서」의 검색과 활용의 경우 전통적인 관련 기록과 현대적인 색인 및 국내 온라인 정보원 활용을 조사하고자한다.

2. 「사고전서」의 간행과 보존

본 장에서는 「사고전서」의 간행과 각 사고전서관별 보관 및 보존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사고전서」의 간행

「사고전서」 명칭의 근거를 살펴보면, 우선 ‘전서(全書)’라 함은 중국 역대 중요 전적을 모두 수집하고 경, 사, 자, 집의 4부로 분류 배열함을 의미하며, ‘사고(四庫)’라 함은 특히 당 현종(玄宗)이 장안(長安)과 낙양(洛陽) 두 도시에 사고를 각각 건설하고 사부전적을 수장한 것에 근거하여 이름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은 만주족이 세운 이민족 왕조로 「청대문자옥(清代文字獄)」에 기록되어 있듯이 한족 지식인들에 대해 엄격한 사상 통제를 가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문화정책을 통해 한족들의 반청(反淸) 의식을 누그러뜨리기에 노력하였다. 특히 강희제(康熙帝)와 건륭제는 적극적인 학술 부흥과 중국 문화의 보호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문화사업을 펼쳐 한족 지식인들을 회유하기에 힘썼다. 특히 건륭제 때 편찬된 「사고전서」와 더불어 「통감집람(通鑑輯覽)」, 「속통지(續通志)」, 「속문헌통고(續文獻通考)」, 「청통전(淸通典)」,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 등도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편찬된 것이었다.

사고전서관(四庫全書館)은 건륭 38년(1773)에 이루어진 것으로, 건륭의 6자인 영용(永瑤)이 총괄하고 386명에 달하는 관원(官員)이 동원되었다.¹⁾ 자료의 수집을 위해 사고전서관은 청조의 장서로서 강희제 이후 청조의 조정에서 칙찬(勅撰)한 도서인 ‘칙찬본(勅撰本)’, 궁정에 소장하고 있던 ‘내부분(內府本)’, 각 성(省)의 지방관들이 채집하여 진상한 ‘각성채진본(各省採進本)’, 장서가들이 소장하고 있다가 황제의 명령으로 진상한 ‘개인진헌본(私人進獻本)’, 당시에 유통되고 있던 ‘통행본(通行本)’ 등의 민간본과 명대에 편찬된 「영락대전(永樂大全)」에서 선별한 ‘영락대전본(永樂大典本)’으로 구분하여 수집하였다.

「사고전서」에 수록여부의 경우, 먼저 각 찬수관(纂修官)의 검정을 거쳐 총찬수관(總纂修官)이 사전 결정을 한 후, 건륭제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엄밀한 심사

1) 그중에는 총재(總裁) 어중민(于敏中), 총찬관(總纂官) 기운(紀昀)과 육석웅(陸錫熊), 총교관(總校官) 육비지(陸費墀)와 학자 대진(戴震), 소진함(邵晉涵), 주영년(周永年)과 요내(姚鼐) 등 외에 초서(鈔胥) 등이 있었다.

과정을 거쳤기에 『흠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라고도 부른다. 또한, 『사고전서』는 여러 차례 교감되었으며, 초본(鈔本)의 경우 천錯(僞誤)가 발견되면 관원(館員)은 누차 책임을 져야 했다.

전하는 것이 희소한 것은 새겨서 『무영전취진판총서(英殿聚珍版叢書)』로 간행하고, 실용에 도움이 되는 ‘저록서(著錄書)’는 교수 등사하여 『사고전서』로 엮었다. ‘저록서’와 채록할 수 없는 ‘존목서(存目書)’는 일정 체제에 의거하여 각 책을 해제 또는 절략(節略)하여 『사고전서총목제요』으로 편찬하였다.

수록한 책은 크게 경, 사, 자, 집의 4부로 나뉘어 있고, 1965년 중화서국(中華書局)에서 영인한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의 통계에 의하면 모두 3,461종 79,309권이고, 『존목』은 6,790종에 93,551권으로 기본적으로 건륭 이전의 중요한 중국 도서를 집결 정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2 『사고전서』의 보관과 보존

『사고전서』는 당시 정본 7부와 부분 1부가 정서되어 북방사각(北方四閣)과 남방삼각(南方三閣)에 보존되었다. 처음에는 4부 만을 만들기로 한 결정에 따라 건륭 47년(1782)에 제1부를 완성하여, 북경 궁 안에 세운 문연각(文淵閣)에 수장하였다. 이듬해에 차례로 나머지 3부를 완성하여 봉천(奉天, 현 沈陽)의 문소각(文溯閣), 원명원(圓明園)의 문원각(文源閣), 열하(熱河)의 행궁(行宮) 안 문진각(文津閣)에 보관하였다. 제1부가 완성되었을 때 고종은 다시 3부를 더 만들도록 명하여 건륭 52년(1787)에 모두 완성되었는데, 뒤에 만들어진 3부는 양주(楊州)의 문회각(文匯閣), 진강(鎮江)의 문종각(文宗閣), 항주(杭州)의 문란각(文瀾閣)에 보관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보관이후 현재까지의 보존 현황을 각 사고전서관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북방의 문원각과 남방의 문종각과 문회각 및 한림원 『사고전서』는 전란과 인화로 소실 또는 훼손되었다. 현재 문소각 『사고전서』는 감숙성도서관에 보존되어 오고 있으며, 문진각 『사고전서』는 중국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사고전서」의 검색과 활용에 대한 연구

문연각『사고전서』는 절강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문연각『사고전서』는 대만의 국립고궁박물원에 소장되어 있다. 한편, 문원각『사고전서』의 경우 그 잔본(殘本)이 프랑스 폰텐블로궁(Château de Fontainebleau)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나, 자세하지 않다.²⁾

<표 1> 사고전서의 보관과 보존

구분	보관 및 보존 상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41년 건륭제 서적 수집 하교 • 1773년 2월22일, 건륭제 '사고전서' 이름 하사, 사고전서관을 열도록 명령 	
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74년 건륭제 宁波 天一閣 조사후 故宮 文華殿 뒤에 天一閣 모방의 문연각 수리 건축하여 『사고전서』 소장할 것을 명령 • 1776년 문연각건축완료, 건륭제 題詩 • 1782년 1월 제1부 『사고전서』 완성, 소장 • 1912년 故宮圖書館으로 朱啓鈞이 文華殿의 原書制版을 취하여 1920년에 파리에서 출판 • 1916년 청 내무부에서 陳漢章 등을 파견하여 檢核하여 『사서대전』 등 9종이 없는 걸 확인, 『高宗皇帝御制詩文集』 1종 추가 • 1917년 청 내무부에서 문연각『사고전서』 검열, 原目原函原卷을 대조하여 9종, 총 23권이 빈 걸 발견, 이는 대부분 가경때 증가시킨 『高宗純皇帝御制詩文集』 300권으로 내무부에서 문진각본을 대본으로 보충 필사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3년 문진각『사고전서』를 빌려 보충 필사 • 1925년 故宮博物院 설립으로 문연각이 도서관에 예속되어 『사고전서』와 이조당 『사고전서회요』 소장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0년 고궁박물원이 『總目』에 의거 문연각『사고전서』 점검, 총 3459종, 36,078책 • 1933년 일본군 熱河 침략, 고궁 古物과 함께 상해로 옮겨져 法租界天主堂街(今四川南路)中央銀行에 보존 • 1937년 남경이 일본 피점령지지가 됨에 따라 문연각『사고전서』는 國民政府의 重慶으로 옮김 • 1948년 『摘藻堂四庫全書薈要』와 『宛委別藏』과 함께 대만으로 옮겨져 故宮博物院에 보관 	
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2년 대만고궁박물원이 台灣商務印書館의 문연각『사고전서』 영인토록 동의 • 1986년 대만상무에서 문연각『사고전서』 영인완성, 1500책 • 1989년 上海古籍出版社에서 문연각『사고전서』 翻印 • 1998년 홍콩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電子全文檢索版的 문연각『사고전서』 출판 • 2004년 線裝本 문연각『사고전서』를 鷺江出版社에서 출판 	

2) 『四庫全書』.

<<http://zh.wikipedia.org/wiki/%E5%9B%9B%E5%BA%AB%E5%85%A8%E6%9B%B8>>

구 분	보 관 및 보 존 상 황	비 고
부 방 사 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74 避暑山庄 문진각 건축 명령 • 1775 문진각 건축시작 및 완료 • 1785 제4부 『사고전서』, 문진각에 보냄 • 1787 건륭 문진각『사고전서』랜덤체크시 李清『諸史同异錄』에 청에 저촉되는 지구 발견, 다시 『사고전서』 교정후 11종을 抽換 銷毀, 필사해놓은 서적으로 보충 • 1788 기윤은 문진각 重核책임 • 1792 건륭제가 기윤에게 다시 문진각『사고전서』 교감 명령 • 1909년 7월 문진각『사고전서』 京師圖書館으로 회부, 청정부 허락 신헌명명으로 중지 • 1913년 문진각 承德에서 옮기기 시작 • 1914년 북경에 도착, 故宮文華殿(古物陳列所)에 임시보관 • 1915년 문진각『사고전서』 북경으로 돌아와 古宮博物院 古物保存所에 보존 후 경사도서관에 보존, 총 6,144함, 36,300책. 원 소장본 제326, 327函의 『日講詩經解義』가 비어 있는데 원인 불명 • 1916년 문진각『사고전서』 경사도서관에 소장완료 • 1917년 문진각 개방 • 1920년 陳垣과 叶恭綽 등이 문진각을 점검, 3개월 후 『四庫全書冊數頁數表』 완성. 전체 총 36,277책. 경사도서관 임시규정(暫行規定) 반포, 문진각『사고전서』 촬영과 傳抄에 개방 • 1921년 교육부에서 문진각『사고전서』로 샘플 인쇄 • 1925년 교육부 長章士鏞이 商務에서 문진각『사고전서』 영인 제의, 전쟁으로 중지 • 1928년 경사도서관이 北平圖書館으로 개칭되고, 문진각『사고전서』 소장 • 1930 북평도서관이 문진각『別集類 篇目』 편집 • 1931년 문진각『사고전서』 재차 옮겨지고 元隆福宮이 文津街으로 바뀜 • 1987년 國家圖書館 新館의 전문서고로 이관 	
문원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74년 문원각 건축 명령. 圓明園內的 원 건축물 四達亭의 기초위에 증축 • 1775년 문원각 건축완료 • 1784 제3부 『사고전서』, 원명원 문원각에 소장 • 1860년 영불연합군의 북경공격, 원명원 문원각과 『사고전서』 훼손소실 	소실
문소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82년 문소각 건축 • 1783년 제2부 『사고전서』 필사완료, 盛京 奉天行宮으로 보내 문소각에 소장 • 1794년 문소각 重核 명령 • 1792년 건륭제는 陸錫熊을 盛京으로 보내 문소각『사고전서』 재 교감 명령 • 1914년 북경으로 돌아와 故宮保和殿에서 보관, 內務府에서 관리 • 1916년 奉天에서 북경으로 옮겨 故宮古物陳 進열소인 保和殿 내에 소장, 이로써 북삼각 모두 북경에 집결 • 1922년 청이 문소각『사고전서』를 일본에 예정이 120萬으로 팔려고 하나 북경대학 교수 沈兼士 등이 교육부에 서한을 전달, 극렬히 반대 • 1923년 문진각『사고전서』를 빌려 보충 필사 • 1925년 奉天 楊宇霆이 教育部長 章士鏞에게 문소각『사고전서』를 沈陽으로 다시 옮기라고 전보, 그전에 教育部 高教司 司長 高步瀛이 명령에 의거 점검 • 1926년 董衆과 譚峻山 등을 특별 초빙하여 북경 古宮博物院에서 문진각 『사고전서』를 근거로 1년간 문소각 『사고전서』의 부족부분을 보충필사 	

「사고전서」의 검색과 활용에 대한 연구

구 분		보 관 및 보 존 상 황	비 고
북 방 사 각	문소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8년 11월, 東北圖書館(현 遼寧省圖書館)이 심양으로 이전되고 문소각「사고전서」 관리 • 1949년 東北人民政府文化部 文物處가 명령을 받고 동북도서관 문소각「사고전서」 정리 협조 • 1950년 黑龍江省 訥河縣의 한 소학교로 옮겨짐 • 1951년 수재방지를 위해 다시 黑龍江省 北安縣에 보존 • 1954년 심양으로 다시 옮김 • 1966년 中央文化部 辦公廳 1966年3月7日 '文廳圖書24號' 公函 지시에 의거하여 甘肅省圖書館에 수장 • 1996년 10월 「古今圖書集成」과 함께 심양에서 蘭州로 이전, 감숙성 永登縣連城魯土司 衙門寺院에 보관 • 1971년 감숙성 榆中縣 甘草店戰備書庫 건축, 문소각「사고전서」 이전 보존 • 2001년 12월 28일 「문소각「사고전서」藏書樓, 蘭州 北山 九洲臺에 정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82년 南方三閣抄書 • 1789년 南三閣 모두 필사완료 • 1790년 南三閣 소장 완료 	
남 방 삼 각	문종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79년 鎮江 金山寺에 문종각 건축 • 1853년 문종각 태평군에 의하여 焚毀 	분쇄
	문회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80년 楊州 大觀堂에 문회각 건축 • 1853년 태평군 양주 공격, 현지 士紳이 劉良駒에게 문회각「사고전서」를 산증으로 옮길 것을 청하나 불응, 문회각 태평군에 의하여 焚毀 	분쇄
	문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杭州 聖因寺에 문란각 건축 • 1860-1861년 태평군의 2차례 항주 공격으로 문란각은 훼손, 「사고전서」 흩어져 丁丙, 丁申 형제가 수습 • 1874년 문란각「사고전서」 7,840책, 총 8,389권을 수습, 300여종만 무사 • 1880년 정병, 정신 다시 문란각 증건, 남은 것 소장 • 정씨형제 自家八千卷樓, 寧波天一閣 및 蘇皖湘粵 등지의 장서명가 소장본을 근거로 7년간 89종 보충. 총 2174종. 즉, 문란각 3,396종, 34,769책으로 복원 • 1898년 「文瀾閣志」 출판 • 1912년 문란각「사고전서」를 浙江圖書館 孤山館소에 수장 • 절강도서관 관장 錢恂 編의 「文瀾閣目」 간행 • 1915년 전순, 문진각「사고전서」로부터 문란각의 빠진 부분을 보충하여 전후 8년에 걸쳐 33종을 보충 필사 및 구입하여 원 문란각「사고전서」 182종을 채움, 이를 「乙卯補抄」라 부름 • 1923년 張宗祥이 문진각「사고전서」를 저본으로 문란각을 세 번째로 보충 필사, 2년 후 총 211종, 2,046책 완성. 다시 교감 후 213종, 2,251책을 전사하고, 또 577면을 전사, 이를 「癸亥補抄」라 함 • 1934년 절강도서관이 다시 문진각「사고전서」 1종을 전사하여 문란각의 결함 보충 이에 문란각「사고전서」 복구되어 총 36,728책, 다만 원본 35,990책을 초과한 것 • 1937년 4월 8일 浙江 富陽으로 옮기고, 11월 하순에 建德으로 옮김 • 1938년 龍泉으로 옮긴 후 3월貴陽에 옮기고, 11월 하순에 重慶으로 옮김 	

구 분		보 관 및 보 존 상 황	비 고
남 방 삼 각	문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6년 증경에서 杭州로 이전 • 1996년 삼십년대후 산일된 문란각『사고전서』를 속발견, 절강도서관이 구매 소장, 북경도서관, 북경대학도서관 등도 문란각『사고전서』를 기증, 이해말 문란각『사고전서』는 총 3,461종, 36,917책이 됨 	
	한림원	• 1860년 영불연합군의 북경공격, 훼손	훼손

그러나 문란각의 경우 태평군의 2차례 공격으로 흩어졌던 것을 정씨 형제가 수습하고 이후 ‘을묘보사’, ‘계해보사’ 등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전사 보충해왔었다. 그 후 산일 되었던 것을 1996년에 발견 후 절강도서관이 구매 소장하였고, 또한 북경도서관, 북경대학도서관 등 역시 소장해오던 문란각『사고전서』를 절강도서관에 기증 반환하였다. 그 외에 문연각과 문소각『사고전서』, 또한 문진각『사고전서』를 빌려 전사하여 보충하였으니, 문진각『사고전서』 외에는 모두 전화에 완전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부 소장처별로 관련 서지류도 간행되었다. 즉, 문란각의 경우 1898년에 『문란각지(文瀾閣志)』, 출판 외에도 1912년에 절강도서관 관장 전순(錢恂) 편 의 『문란각목(文瀾閣目)』도 간행되었다. 문진각의 경우 1920년 진원(陳垣)과 섭공작(叶恭綽) 등이 문진각『사고전서』를 점검 후 『사고전서책수혈수표(四庫全書冊數頁數表)』를 완성하였으며, 1930년에 당시 북평도서관에서 『문진각별집류편목(文津閣別集類篇目)』도 편집하였다. 이들은 『사고전서』의 초기 소장 이후 현전 상황 이해에 참고 가치가 큰 출판물이라 할 수 있다.

3. 18-9세기의 『사고전서』 검색과 활용

『사고전서』 간행 이후 검색을 위한 목록 또는 철회 및 보완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에 본장에서는 18-9 세기를 범위로 목록류와 수록서적의 철회와 보완 그리고 미수서적 목록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3.1 「사고전서」 목록류

3.1.1 「사고전서총목」과 「사고전서간명목록」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은 「사고전서」에 들어가는 3,400여종의 ‘저록서’와 6,700여종의 ‘존목서’를 수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고전서」 목록류이다. 기윤 등이 1782년에 총 200권으로 편찬한 중국 최대의 관찬목록으로 건륭 38년(1773)에 시작하여 8년 후 초고 완성 후 수정과 보충 작업을 거쳐 건륭 54년(1792)에 완성하여 무영전(武英殿)에서 간행되었다. 이후 60년에 浙江 관부(官府)에서 항주 문란각 소장의 무영전 「사고전서총목」(즉 殿本)을 번각(翻刻)하면서 광범위하게 유전되게 되었다.

「사고전서」와 같이 경, 사, 자, 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부류 이하 각 책에 대하여 서론, 해제, 작가소개, 판본원류, 평론 등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저록서’는 「사고전서」에 포함된 문헌들이며, ‘존목서’는 「사고전서」에 서명만 나열된 것이나 「사고전서총목」의 경우 모두 제요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즉, 이를 통하여 「사고전서」에 서명만 나열되어 있던 ‘존목서’의 내용을 살필 수 있다. 이 목록은 제요를 싣고 있기에 일명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 또는 간칭으로 「사고총목」 또는 「총목」이라고도 한다.

「사고전서간명목록(四庫全書簡明目錄)」은 건륭 39년(1774)에 우민중(于敏中)이 건륭제의 명에 따라 20권으로 엮은 책이다. 이는 「사고전서총목제요」의 중요한 서적을 모아 목록과 판본, 제요 등을 재차 요약, 정리하여 간명하게 적은 목록이다.

3.1.2 「사고전서부존목록」

「사고전서부존목록(四庫全書附存目彙)」은 건륭 5년(41792)에 기윤이 총목정고(總目定稿)를 완성하여 무영전(武英殿)에서 각인한 후 호건(胡虔)이 관각하여 8년 만에 완성한 것이다. 「사고전서총목」과 「사고전서부존목록」을 비교한 「정당독서

기(鄭堂讀書記)에 의하면 일부 서목이 오류가 있기는 하나 『사고전서총목』에 있는 7종이 『사고전서부존목록』에는 없고, 『사고전서총목』에 없는데 『사고전서부존목록』에는 있는 것이 34종이나 된다(<표 2> 참조).

『사고전서총목』에 7종이 더 있는 이유는 1) 『역관』은 단순한 증보, 2) 『우우소전』, 『실지론』, 『남원시초』 및 『천적집』의 경우는 원인불명이나 사후 보충, 3) 『증보 무림구사』와 『명시고』는 저록서를 이후에 존목서로 변경한 것이다. 『사고전서부존목록』에 있는 34종은 1) 『상사』와 『송패류초』는 존목서를 저록서로 변경, 2) 『겸제당주소』와 『화사』는 중복으로 되출, 3) 주양공의 저술과 장시태의 『속자치통감강목광의』 및 명 인종의 『천원오력상이부』, 정 위의 『문산집』은 철회, 4) 그 외의 책들은 학술가치와 정치수요에 의하여 철회된 것으로 보이나 원인 불명으로 분석되고 있다.³⁾

<표 2> 『사고전서총목』과 『사고전서부존목록』의 수록 문헌

구분	수 록 문 헌	비 고
『사고전서 총목』에만 수록된 문헌	清 胡淳 撰, 『易觀』 4卷 明 廷相 撰, 『友于小傳』 2卷 明 周廷煥 撰, 『增補武林舊事』 8卷 明 葉秉敬 『明諡考』 38卷 舊本題 明春和子 撰, 『實地論』 2卷 清 尤世求 撰, 『南園詩鈔』 10卷 明 釋無相 撰, 『天籍集』 10卷	
『사고전서 부존목록』에만 수록된 문헌	清 黃琳 撰, 『經學淵源錄』 30卷 清 龔鼎孳 撰, 『龔端毅奏疏』 8卷 清 魏裔介 撰, 『兼濟堂奏疏』 明 鄭孳 編, 『宋三大臣匯志』 21卷 明 李壁 編, 『劍陽名儒錄』 1卷 清 章秉法 撰, 『明道書院紀績』 4卷 明 劉績 撰, 『春秋左傳類解』 20卷 明 唐順之 撰, 『左氏始末』 12卷 明 顏鯨 撰, 『春秋貫玉』 4卷 明 秦淪 撰, 『春秋類編』 32卷 明 章大吉 撰, 『左記』 12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의 표시가 없는 것은 권의 구별이 없는 경우이다. • 34종 중 청 李鏞 찬의 『尙史』의 경우 『사고전서』에 포함되어 있다.

3) 陳旭東, “『四庫全書總目』較『四庫全書附存目錄』書目增刪及原因探析,” 『山東圖書館學刊』 第4期(2011), 102.

구 분	수 록 문 헌	비 고
「사고전서 부존목록」에만 수록된 문헌	明 孫范 撰, 「左傳分國紀事」, 22卷	
	清 魏禧 撰, 「左傳經世」, 10卷	
	清 盧元昌 撰, 「左傳分國纂略」, 16卷	
	明 楊爾曾 撰, 「海內奇觀」, 10卷	
	明 朱紹本, 吳學儼, 朱國達, 朱國干同 撰, 「地圖綜要」,	
	清 蔡方炳 撰, 「歷代茶權志」, 1卷	
	舊本題 清 蔡方炳 撰, 「歷代馬政志」, 1卷	
	明 張時泰 撰, 「續資治通鑑綱目廣義」, 17卷	
	明 洪熙中 官撰, 「天元玉歷祥異賦」,	
	清 周亮工 撰, 「字解」, 6卷	
	清 周在浚 撰, 「烟云過眼錄」, 20卷	
	清 潘永固 編, 「宋稗類鈔」, 8卷	
	清 張芳 編, 「食色觀」, 6卷	
	清 周亮工 撰, 「賴古堂藏書」,	
	明 仲遵 撰, 「花史」, 27卷	
	明 范應虛 撰, 「紫量道院集」, 2卷	
	清 吳兆 撰, 「吳非熊集」, 8卷	
	清 周亮工 撰, 「賴古堂詩集」, 8卷	
	清 丁煒 撰, 「問山詩集」, 10卷; 「文集」, 8卷; 「紫雲詞」, 1卷	
	明 陶珽 編, 「四大家文選」, 8卷	
清 宋肇 撰, 「三家文鈔」, 32卷		
清 王士禛 撰, 「新安二布衣詩」, 8卷		

3.2 「사고전서」 수록서적의 철회와 보완

3.2.1 「사고전서」 수록서적의 철회

건륭 52년(1787)에 건륭은 「사고전서」 중 이청(李清)의 「제사동이록(諸史同異錄)」에 청조를 저해하는 자기가 있음을 발견하고 「사고전서」 전체를 다시 교감토록 하고 11종을 철회하였다. 또한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제요도 빼버렸다. 사후에 철회된 서적은 다음과 같다.

- 1) 명(明) 이청(李清)의 「제사동이록」, 「남북사합주(南北史合注)」, 「남당서합정(南唐書合訂)」, 「역대부지성명록(歷代不知姓名錄)」
- 2) 청(淸) 주량공(周亮工)의 「독서록(讀書錄)」, 「서영(書影)」, 「민소기(閩小紀)」, 「인인전(印人傳)」, 「동서(同書)」

- 3) 오기정(吳其貞)의 『서화기(書畫記)』
- 4) 반정장(潘樞章)의 『국가고이(國史考異)』

다만 곽백공(郭伯恭)의 『사고전서찬수고(四庫全書纂修考)』에 의하면 이상 11종의 서적은 『사고전서』에서 철회되었어도 일부는 여전히 궁안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이후 『제사동이록』과 『동서』의 경우 행방이 묘연해졌다.

3.2.2 「사고전서」 수록서적의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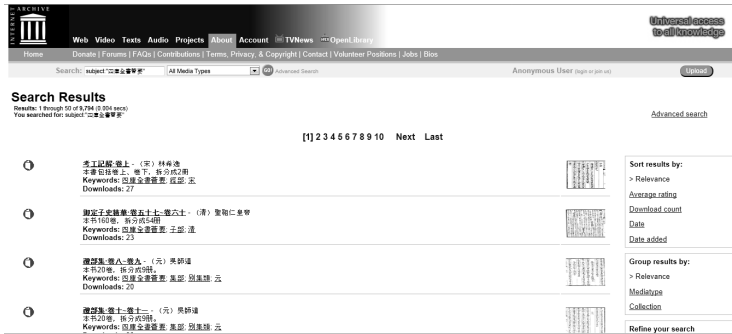
『사고전서』가 편찬되기 시작한 후, 건륭제는 생을 마감하기 전에 중요하면서 필수적인 책을 보고 싶어 하여 『사고전서회요(四庫全書薈要)』를 편찬토록 하였다. 즉, 『사고전서회요』는 우민중(于敏中)이 총책임자로 건륭 43년(1778)에 제1부를 완성하였다. 이는 자금성(紫禁城) 내 어화원(御花園) 이조당(摛藻堂)⁴⁾에 보존하였으며, 일명 『흠정사고전서회요(欽定四庫全書薈要)』 또는 『이조당사고전서회요(摛藻堂四庫全書薈要)』라고도 불리운다. 『사고전서』와 마찬가지로 4부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463종으로 경부 173종, 사부 70종, 자부 81종, 집부 149종으로 20,280권 11,778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1780년 완성된 제2부의 경우 원명원(圓明園) 동쪽 밖 장춘원(長春園)의 미유서실(味腴書室)⁵⁾에 보관하였다. 1860년 영불연합군 북경공격으로 미유서실의 『사고전서회요』는 훼손되었으나, 1914년 고궁선후위원회(故宮善後委員會)가 이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25년 고궁박물관(故宮博物院) 설립으로 문연각이 도서관에 예속되면서 『사고전서』와 이조당 『사고전서회요』도 소장되었다. 이후 1948년 문연각본 『사고전서』, 이조당 『사고전서회요』 및 『완위별장(宛委別藏)』이 함께 대만으로 옮겨졌고,

4) 자금성(紫禁城) 내에는 어화원(御花園), 자녕궁화원(慈寧宮花園), 건복궁화원(建福宮花園), 영수궁화원(寧壽宮花園)이 있다. 그중 어화원은 명 영락(永樂) 18년(1420)에 건설된 궁후원(宮後苑)을 청대에 개칭한 것으로 자금성 곤녕궁(坤寧宮)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황제와 황후 및 후비 등의 휴식처이자 제사, 이양(頤養), 장서(藏書), 독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이조당은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5) 미유서실의 옛이름은 수마촌(水磨村)이다.

현재 대만 고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참고로 Internet Archives Search의 「사고전서회요」 온라인버전이 구축되어 있어, 원문 검색이 가능하다(<그림 1> 참조).



<그림 1> Internet Archives Search의 「사고전서회요」

3.3 「사고전서」 미수서적 목록

「사고전서」에 실리지 않은 서적들을 대상으로 간행된 문헌으로는 「판서우기(販書偶記)」,⁶⁾ 「완위별장(宛委別藏)」 외에 1998년에 편집을 시작한 「사고미수서집간(四庫未收書輯刊)」과 2000년에 북경출판사에서 출판한 「사고미수서집간」(총 301책(색인 1책), 1,328종) 등이 있다. 그중 대표적으로 「완위별장」은 다음과 같다.

「완위별장」은 청초학자 완원(阮元)⁷⁾이 몇십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수집, 편찬, 초록하여 완성한 「사고전서」 미수서목이다. 완원이 절강 순무(巡撫) 일 때 「사고전서」에 미수된 대량의 선본서적 175종을 얻게 되었다. 「사고전서총목」의 예에 따라 각 책의 제요를 쓰고, 각 부분의 원판 서적 수집 외에 사람을 고용하여 정품을 초록하여 주진(奏進)하니 가경제(嘉慶帝)가 매우 기뻐하였으며, 진하는 설에 의

6) 「판서우기」와 「판소우기속편(販書偶記續編)」은 「사고전서총목」의 보편(補編)으로도 알려져 있다.

7) 저자 완원(1764-1849)은 청대 학자이자 문학가이다. 자는 백원(伯元), 호는 운태(芸台)로 강소(江蘇) 의정(儀征)사람이다. 항주(杭州)에서 고경정사(詒經精舍)를 창립하였으며, 광주(廣州)에서 학해당(學海堂)을 창설하였다.

하면 ‘夏禹登 宛委山 得金簡玉字之書’에 근거하여 친필로 ‘완위별장’이라 이름을 내려주었다.⁸⁾ 각 서적의 권수에 ‘가경어람지보(嘉慶御覽之寶)’라는 어새(御璽)가 찍혀 있으며, 「완위별장」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은 희귀한 진본비급(珍本秘笈)이거나 공사저록에 없는 것으로 「황송통감기사본말(皇宋通鑑紀事本末)」, 「조기문집(鈞磯文集)」, 「초포총록(招捕總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중국 내에서는 이미 실전(失傳) 된 것으로 「난경집주(難經集注)」, 「오행대의(五行大義)」, 「문관사림(文館詞林)」 등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사고전서」에는 결질인 「상서요의(尙書要義)」 3권, 「이건지(夷堅志)」 사지(四志), 「묵객휘서(墨客揮犀)」 속편(續編) 등을 보충하고 있다.

넷째, 「완위별장」에 수록된 것은 모두 구본(舊本)에 의거하여 정사한 것으로 그중 송각(宋刻)이 원본인 약 30여종, 원간(元刊)이 원본인 10여종이다. 이들은 원본이 궁중에 소장되어 있어 세간에 유전되지 못한 것으로 모두 판본가치가 매우 높은 것들이다(<표 3> 참조).

이는 일본과의 동북에서의 ‘9·18사변’ 이후 전화가 북경에 까지 이를 것을 우려하여 고궁박물관(故宮博物院)에서 제일 진귀한 것들을 남경으로 옮겼다가 다시 사천(四川)으로 옮겨 보관해온 것이다. 그중에 이 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전술하였듯이 1945년 해방 전날밤 국민당(國民黨)이 문연각「사고전서」와 이조당「사고전서회요」와 함께 대만으로 옮겼으며, 이후 대북 고궁박물관(故宮博物院)에 소장되게 되었다.

8) ‘완원(宛委) 두자는 원래 절강 소흥(高興 會稽)의 완위산(宛委山)에서 딴 것이다. 완위산은 회계산(會稽山)의 지봉(支峰)으로 위에 석궤(石匱)가 있어 ‘석궤산’이라고도 부른다. 전설에 의하면 우중(禹曾)이 이산에서 금사옥자(金簡玉字)를 얻었다하여 또 ‘옥사(玉簡)’라고 부른다. 석궤든 옥사이든 모두 서적을 넣어 두는 기물과 관련되는 것으로 서적장서처로는 최고(冠之于藏書)라 하였다. 「완위별장」은 가경제 고궁 양심전(養心殿) 장서의 총칭으로 양심전은 청 옹정제(雍正帝) 이래 역대 황제의 일상 공무와 주거 장소(옹정 이전 황제는 건청궁(乾清宮)에 거주)였다. 양심전중의 어서안(御書案)은 황제 비열주장(批閱奏章)의 서탁으로 가경이 「완위별장」을 이곳에 수장하여 매우 귀히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또 일설에는 가경이 이들 서적을 충분히 혼사(欣賞)하였기에 양심전 벽 한켠에 소장하고 ‘嘉慶御賞之寶’로 삼아, 후세에 「완위별장」이 되었다 한다.

<표 3> 「안위별장」 수록 문헌

부 권	수 록 문 헌	종수	
경부	1-2 宋 龔原 撰, 『周易新講義』		
	3 宋 李中正 撰, 『泰軒易傳』		
	4 宋 謝枋得 撰, 『詩傳注疏』; 宋 魏了翁 撰, 『尚書要義』; 宋 段昌武 撰, 『昌武段氏詩義指南』; 元 涂潛生 撰, 『周易經疑』	4	
	5 宋 劉克 撰, 『詩說』		
	6 明 孫鼎 撰, 『詩義集說』		
	7-9 宋 魏了翁 撰, 『記要義』		
	10 元 龔端禮 撰, 『服圖解』; 宋 胡元質 撰, 『左氏摘奇』	2	
	11-2 宋 張洽 撰, 『春秋集傳』		
	13 宋 張文伯 撰, 『九經疑難』		
	14 元 蕭鎰 撰, 『四書待問』; 元 許謙 撰, 『讀論語叢說』; 元 許謙 撰, 『中庸叢說』	3	
	15 唐 武則天 撰, 『樂書要錄』; 宋 趙德 撰, 『四書箋義』	2	
	16 宋 陸佃 撰, 『爾雅新義』		
	17-8 宋 劉球 撰, 『隶韻』		
	19 宋 杜從古 撰, 『集篆古文韻海』; 元 吾衍 撰, 『續古篆韻』	2	
	20 元 曹本 撰, 『續夏古編』		
	21 元 楊鈞 撰, 『增廣鐘鼎篆韻』		
	사부	22-3 宋 史炤 撰, 『資治通鑒釋文』	
		24 宋 章衡 撰, 『編年通載』	
		25-9 宋 不詳, 『增入名儒講義皇宋中興兩朝聖政』	
		30-9 宋 楊仲良 撰, 『皇宋通鑒長編紀事本末』	
		40 唐 馬總 撰, 『通紀』; 元 不詳, 『皇元征細錄』	2
41 唐 陸贄 撰 宋 『郎曄 注, 『陸宣公奏議注』			
42 宋 張栻 撰, 『諸葛忠武侯傳』; 『編類哈復安郭公敏行錄』; 元 徐東 撰, 『哈復安郭公言行錄』		3	
43 宋 楊潛 撰, 『云間志』; 宋 路振 撰, 『九國志』		2	
44 宋 盧憲 撰, 『嘉定鎮江志』			
45 宋 施諤 撰, 『淳佑臨安志』; 宋 凌万頃, 邊實 纂修, 『玉峰志』, 『玉峰續志』		3	
46-7 元, 『至順鎮江志』			
48 元 盧鎮 撰, 『重修琴川志』			
49 元 李志常 撰, 『長春真人游記』; 元 楊諤 撰, 『昆山郡志』; 宋 陳田夫 撰, 『南岳總勝集』		3	
50 元 陶宗儀 撰, 『游志續編』; 宋 李俊甫 撰, 『莆陽比事』		2	

부 권		수 록 문 헌	종 수
사 부	51	元. 「招捕總錄」宋 孫奭 等 音義. 「宋律」; 元 叶留 撰. 「爲政善報事類」; 宋 劉攽 撰. 「漢官儀」	4
	52-3	宋 歐陽修 等 撰. 「太常因革禮」	
	54-5	宋 晁公武 撰. 姚應 續編. 「衢本郡齋讀書志」	
	56-9	宋 胡寅 撰. 「致堂讀史管見」	
	60	元 朱礼 撰. 「漢唐事箋」	
자 부	61	唐 武則天 撰. 「臣軌」; 漢 孔鮒 撰. 宋 宋咸 注. 「孔叢子注題」	2
	62	明 焦竑 撰. 「養正圖解」; 明 劉寅 撰. 「尉繚子直解」. 「司馬法直解」	3
	63	宋 吉天保 撰. 「孫子十家注」	
	64	周 秦越人 撰. 明 王九思 等 集注. 「難經集注」; 漢 華佗 撰. 「華氏中藏經 題」	2
	65	晋 王叔和 撰. 宋 林亿 等 校定. 「脉經」; 唐 杜光庭 撰. 「广成先生玉函經」	2
	66	金 陳文中 撰. 「陳氏小儿病源方論」; 宋 嚴器之 撰. 「氏明理論」; 唐 孫思邈 撰. 「千金宝要」	3
	67	宋 朱佐 撰. 「類編朱氏集驗秘方」	
	68	宋 荊執禮 撰. 「宝佑四年會天歷」; 宋 史載之 撰. 「史載之方」; 宋 楊輝 撰. 「楊氏演算法」; 宋. 「三術撮要」	4
	69	明 朱載堉 撰. 「嘉量算經」; 元 朱世杰 撰. 「新編四元玉鑿」	2
	70	隋 蕭吉 撰. 「五行大義」; 宋 楊維德等 撰. 「遁甲符應經」; 宋 祝泌 撰. 「六壬大占」	3
	71	元 呂宗杰 撰. 「書經補遺」; 宋 黃晞 撰. 「磬隅子獻欽頂微論」; 宋 朱伯仁 撰. 「梅花喜神譜」; 唐 羅隱 撰. 「讒書」; 漢 蔡邕 撰. 「琴操」; 唐 楊暉 撰. 「膳夫經」	6
	72	宋 李季可 撰. 「松窗百說」; 宋 俞玉 撰. 「書齋夜話」; 元 梁寅 撰. 「策要」	3
	73-7	唐 魏徵 等 撰. 「群書治要」	
	78-80	元 嘿齋 蒙翁 輯. 「群書通要」	
	81-3	宋 錢諷 撰. 「四溪先生史韻」	
	84	宋 金盈之 撰. 「醉翁談錄」; 徐光溥 撰. 「自号錄」; 宋 上官融 撰. 「友會談叢」; 宋 彭乘 撰. 「續墨客揮犀題」; 宋 王芮 撰. 元 鄭鎮孫 注. 「歷代蒙求纂注」; 唐 皇甫枚 撰. 「三水小牘」	6
	85	宋 孔平仲 撰. 「續世說」	
	86-9	宋 洪邁 撰. 「夷堅志」	
	90	明 王磐 輯. 「群書類編故事」	
	91	唐 釋慧祥. 宋 釋延一. 張商英 撰. 「古清凉傳」. 「廣清凉傳」. 「續清凉傳」	3
92-3	唐 釋玄應 撰. 「一切經音義」		
94	唐 李筌 撰. 「黃帝陰符經疏」; 唐 張君相 撰. 「道德真經集解」	2	
95	宋 章安 撰. 「宋徽宗道德真經解義」		

「사고전서」의 검색과 활용에 대한 연구

부 권		수 록 문 헌	종수
자 부	96	唐 盧重元注, 「列子注」; 唐 陸希聲 撰, 「道德真經傳」; 唐 王眞 撰, 「道德經論兵要義述」; 宋 陳顯微 撰, 「關尹子言外經旨」	4
	97	唐 王瓘 撰, 「廣黃帝本行記」; 宋 軒轅黃帝傳; 唐 徐靈府 注, 「通玄真經注」	3
집 부	98	宋 錢杲之 撰, 「離騷集傳」; 晉 陸机 撰, 「陸士衡文集」; 梁 陶宏景 撰, 「華陽陶隱居集」; 宋 湯漢 注, 「陶靖節詩注」; 晉 釋支遁 撰, 「支遁集」	5
	99	唐 徐寅 撰, 「正字先輩徐公鈞磯文集」; 唐 岑參 撰, 「岑嘉州集」	2
	100	宋 晁冲之 撰, 「晁具茨先生詩集」; 宋 蘇過 撰, 「斜川集」	2
	101	宋 陳与義 撰, 「增廣箋注簡齋詩集」	
	102	宋 徐僑 撰, 「毅齋別集」; 宋 崔敦 詩, 「崔舍人玉堂類稿」, 「西垣類稿」	3
	103	宋 項安世 撰, 「平庵悔稿」	
	104	宋 徐鈞 撰, 「史咏集」; 宋 汪炎昶 撰, 「古逸民先生集」; 宋 方信孺 撰, 「南海百咏」	3
	105	元 方回 撰, 「桐江集」	
	106	元 朱思本 撰, 「貞一齋詩文稿」; 元 顧瑛 撰, 「玉山璞稿」; 元 邵亨貞 撰, 「蟻術詩選」; 元 韋珪 撰, 「梅花百咏」	4
	107	元 馬玉麟 撰, 「東臯先生詩集」; 元 平顯 撰, 「松雨軒詩集」; 明 蔣主忠 撰, 「慎齋集」	3
	108	宋 林之奇 編, 呂祖謙 集注, 「東萊集注類編觀瀾文集」	
	109	宋 趙蕃, 韓泂 選, 謝枋得 注, 「注解章泉·澗泉二先生選唐詩」; 宋 劉克庄 編, 「分門纂類唐宋時賢千家詩選後村千家詩」	2
	110	宋 陳鑒 編, 「東漢文鑒」	
	111-2	宋 趙孟奎 編, 「分門纂類唐歌詩」	
	113-4	元 蔣易 編, 「元風雅」	
	115	元 譚金孫編, 「諸儒輿論策學統宗」; 劉瑄 編, 「詩苑蟹」; 宋 孟宗寶 編, 「洞霄詩集」; 元, 「元賦 青云梯」	3
	116	宋 楊因道 撰, 「云慶四六餘話」; 宋 韋居安 撰, 「梅磻詩話」; 宋 鄭起, 「聲律關鍵」	3
	117	金 元好問 撰, 「遺山樂府」; 宋 朱敦儒 撰, 「樵歌」; 宋 周邦彥 撰, 陳元龍 注, 「詳注周美成片玉集」; 宋 王以凝 撰, 「王周士詞」; 宋 周密 撰, 「萍洲漁笛譜」	5
	118	宋 張炎 撰, 「詞源」; 宋 趙聞禮編, 「陽春白雪, 外集」	2-3
	119	「新增詞林要韻詞林韻釋」; 元, 「精選名儒草堂 詩餘」; 元 邵亨貞 撰, 「蟻術詞選」	3
120	清 侯文燦編, 「名家詞集」	1	

4. 20세기-현재의 「사고전서」 검색과 활용

20세기 들어 「사고전서」의 검색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보원의 간행이 이루어졌다. 본장에서는 우선 인쇄매체와 전자매체로 구분하여 20세기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사고전서」 검색과 활용 관련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한국의 「사고전서」 검색과 활용 또한 고찰하고자 한다.

4.1 인쇄매체

20세기 이후 현재까지 간행된 「사고전서」 검색과 활용 관련 출판 문헌의 분류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1) 편찬사료, (2) 「사고전서총목제요」의 변증과 보정, (3) 「사고전서총목제요」의 해설과 주석, (4) 관련연구, (5) 판본고변으로 분류하거나, (1) 「사고전서」의 편찬과 개술에 관한 것, (2) 목록과 판본에 관한 것, (3) 「사고전서총목제요」의 보정과 연구에 관한 것, (4) 「사고전서」의 수정과 영인에 관한 것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⁹⁾ 본 연구에서는 (1) 사고전서의 개술, (2) 「사고전서총목제요」의 변증과 보정, (3) 목록의 연구, (4) 고증과 판본연구, (5) 금훼와 존목서목, (6) 검색정보원 등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사고전서의 검색 정보원

분류	정보원	비고
개관	楊家駱, 「四庫大辭典」, 燕京大學圖書館引得編纂處, 1932. 「四庫全書總目及未收書目引得」 任松如, 「四庫全書答問」, 1933. 鄭鶴聲, 「四庫全書簡說」, 南京鍾山書局, 1933. 王重民, 「辦理四庫全書檔案」, 1934. 王重民, 「辦理四庫全書檔案」, 北平圖書館, 1934. 郭伯恭, 「四庫全書纂修考」, 商務印書館, 1936. 郭伯恭, 「四庫全書纂修考」, 商務印書館, 1937.	

9) 許璧, 「四庫全書考」, 「東方學志」, 53권(1986), 243-63.

「사고전서」의 검색과 활용에 대한 연구

분류	정 보 원	비 고
개관	楊家駱, 『四庫全書字典』, 世界書局, 1946.	원명: 사고대사전
	楊家駱, 『四庫大辭典』, 自刊, 1967.; 臺北中國辭典館復館籌備處, 1971.	
	楊家駱, 『四庫全書概述』, 1975(台灣中國學典館夏館籌備處)	
	吳哲夫, 『四庫全書薈要纂修考』, 國立故宮博物院, 1976.	
	黃愛平, 『四庫全書纂修研究』,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9.	
	吳哲夫, 『四庫全書纂修之研究』, 臺北: 故宮博物院, 1990.	
	中國第一歷史檔案館編, 『纂修四庫全書檔案』,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7.	
	翁方綱 等撰, 吳格, 樂怡 標校整理, 『四庫提要分纂稿』, 上海: 上海書店, 2006.	
	任啓珊, 『四庫全書答問』, 上海啓智書局.	
제요	陳坦, 『四庫全書編纂始末』, 梁氏慕眞軒稿本.	
	黃文弼, 『擬編續四庫書目略說』, 1924.	
	阮元, 『四庫未收書目提要』, 商務印書館.	
	周雲青, 『四庫未收書目提要』補四卷. 梁氏慕眞軒稿本.	
	胡玉縉, 『四庫未收書目提要編目』.	
	尙鎔, 『四庫提要補正』, 尙宛甫雜著本.	
	余嘉錫, 『四庫提要辨證』, 藝文印書館.	
	王欣夫, 『四庫全書總目提要補正』.	
	林鶴年, 『四庫全書表文箋釋』, 四卷. 吳興劉承幹刻求恕齋叢書本, 1915.	
	周雲青, 『四庫全書提要敘箋注』, 上海醫學書局, 1926.	
	周雲青箋注, 『四庫全書提要敘箋注』, 上海: 醫學書局, 1929.	
	『續修四庫全書提要』, 北京東方文化研究所, 1943.	
	余嘉錫, 『四庫提要辨證』, 科學出版社, 1958.	
	胡玉縉, 『四庫全書提要補正』, 中華書局, 1964.	
	土曜談話會四庫全書總目提要敘編輯委員會編, 『四庫全書總目提要敘譯注』,	
	4冊. 東京: 土曜談話會; 汲古書院, 1972-3.	
	劉新華注, 『四庫全書總目類敘注』, 自刊, 1975.	
	胡玉縉, 『四庫全書總目提要補正』.	
	劉兆祐, 『四庫著錄元人別集提要補正』, 中國學術著作獎助委員會, 1978.	
余嘉錫, 『四庫提要辨證』, 北京: 中華書局, 1980.		
崔富章, 『四庫提要補正』, 杭州大學出版社, 1990.		
『欽定四庫全書總目整理本』, 中華書局, 1997.		
胡玉縉撰, 王欣夫輯, 『四庫全書總目提要補正』, 上海: 上海書店, 1998.		
『武英殿四庫全書總目提要』, 乾隆 60(1795) 武英殿本. 臺北: 臺北商務印書館, 2000.		
『四庫全書總目提要』, 北京: 中華書局館, 1965.;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2000.		

분류	정 보 원	비 고
제요	楊武泉, 『四庫全書總目辨誤』,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張舜徽, 『四庫提要敘講疏』, 臺北: 臺灣學生書局, 2002. 李裕民, 『四庫提要訂誤』(增訂本), 北京: 書日文獻出版社, 2005. 『文淵閣四庫全書提要』, 影僞滿康德2年(1935) 遼海書社本, 北京: 商務印書館, 2006. 四庫全書出版工作委員會編, 『文津閣四庫全書提要匯編』, 北京: 商務印書館, 2006.	
색인	燕京大學圖書館引得編纂處, 『四庫全書總目及未收書目引得』, 1932. 奉天圖書館編 『文溯閣四庫全書要略及索引』, 1938. 胡鳴盛, 『四庫薈要目錄索引』, 1932. 于炳耀, 『四庫全書索引』, 1934. 洪業等, 『四庫全書總目及未收書目引得』, 成文出版社, 1965.	
목록 연구	倫明, 『四庫全書目錄續編』, 梁氏慕眞軒稿本. 范志熙, 『四庫總目韻編』 『摛藻堂四庫會要書目』, 商務印書館.	
	楊立誠, 『四庫目略』, 浙江省立圖書館, 1929.	
	邵懿辰, 『增訂四庫簡明目彙標注』, 上海: 中華書局上海編輯部, 1959.	
	『四庫全書總目』, 北京: 中華書局, 1965.	대감본
	孫耀卿, 『四庫書目續編』, 世界書局, 1967.	대감본
	『欽定四庫全書總目』, 北京: 中華書局, 1997.	대감본
	楊立誠, 『四庫目略』, 中華書局, 1970. 許文淵, 『清修四庫全書之目錄學』, 國立政治大學, 1975. 周積明 撰, 『文化視野下的四庫全書總目』, 修訂版, 中國青年出版社, 2001. 司馬朝軍, 『四庫全書總目纂修考』,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2005. 張傳峰, 『四庫全書總目學術思想研究』, 北京: 學林出版社, 2007. 陳曉華, 『四庫全書總目學史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8. 陳曉華, 『四庫全書與十八世紀的中國知識分子』,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9.	
금쇄	姚瑾 編, 『禁書總目四種』, 1882. 鄧實 編, 『違碍書目』(『國粹叢書』本), 1907. 吳祖慰 校訂, 『四庫采進書目』, 『清代禁毀書目補遺』, 『清代禁毀書知見錄』 外編, 商務印書館, 1957. 『四庫禁毀書叢刊』全 300冊, 北京: 北京出版社, 1999. 『清代禁書知見錄書』 陳乃乾, 『禁書總錄』	
고증	田繼宗, 『四庫全書永樂大典版本考』, 梁氏慕眞軒稿本. 葉德輝, 『四庫全書總目版本考』, 梁氏慕眞軒稿本. 王太岳, 『四庫全書考証』, 商務印書館, 1941. 楊武泉, 『四庫全書總目辯誤』, 上海古籍出版社, 2001.	

분류	정 보 원	비 고
보완	陳乃乾, 『四庫全書未收書目』, 上海大東書局, 1926.	
	欒貴明, 『四庫輯本別集拾遺』, 中華書局, 1983.	
	北京圖書館, 『集部 補遺』 15冊, 1997.	문연각, 문진각 대교
존목	『四庫全書存目叢書』, 齊魯書社, 1993.	
	『四庫全書存目叢書』, 莊嚴文化事業有限公司, 1997.	
	『四庫全書存目叢書補編』, 齊魯書社, 2001.	

<표 4>에 의하면 20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사고전서」의 검색과 활용을 위한 인쇄매체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사고전서」의 개술과 「사고전서총목제요」의 변증(辨證)과 보정(補正). 20세기 들어 「사고전서」를 연구 개술하거나 「사고전서총목제요」에 대하여 변증 또는 보정하는 인쇄매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 건륭의 명령 하에 「사고전서」를 편찬하면서 봉건통치 실천이라는 특수 정치목적으로 사회적 지위나 신분의 의견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고적을 논술할 때 착오와 부당한 면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후대에 「사고전서」 연구 및 분석하거나 「사고전서총목제요」에 대한 변증과 보정 연구서는 계속 간행되었다.

여가석의 「사고제요변증」, 호옥집의 「사고미수서목제요편목」, 왕흠부의 「사고전서총목제요보정」, 양가락의 「사고대사전」 부록, 이유민의 「사고제요정오」, 최부장의 「사고제요보정」 등은 주로 「사고전서총목제요」의 오류를 고증 및 보충하고 있다. 특히 무영전본을 저본으로 각계연구를 참고하여 출판한 「흠정사고전서총목정리본」의 경우 고증 및 보정의 결정판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목록연구서. 「사고전서간명목록운편」의 경우 각 서명의 마지막 자로 배열한 ‘제민식(齊民式)’으로 색인하고 있으며, 이는 범지회가 편한 「사고총목운편」과 같은 색인법이다. 「이조당사고회요서목」은 상무인서관 만유문고(萬有文庫) 판에 딸린 것으로 「사고전서총목제요」 4책으로 구성하여 저록서와 존목서의 서명 및 찬자인명 등을 수록하고 있다. 글자 네모서리의 필형(筆形)에 따라 번호를 대입한 네단위의 숫자로 만든 ‘사각호마(四角號碼) 검색법’으로 검색 가능하다.

셋째, 고증과 판본연구서. 『사고전서고증』은 사고관 왕태약, 왕연서(王燕緒) 및 조석보(曹錫寶) 등이 편찬한 것이다. 주로 『사고전서』 중 11,000여 종을 대상으로 고증한 것이다. 고증범위는 1) 문자교감, 2) 원간(原刊)의 착오 지적, 3) 수서에 대한 일종의 설명을 가하였다. 그 외에 영락대전본만을 대상으로 판본을 고증하는 등의 전문분야별 고증과 판본 연구서들이 있다.

넷째, 금훼서목. 『사고전서』에는 도개(塗改)한 문자들이 있다. 대개 ‘호(胡)’는 ‘금(金)’으로, ‘노(虜)’는 ‘적(敵)’으로, ‘적(賊)’은 ‘인(人)’으로, ‘노정(虜廷)’은 ‘북정(北廷)’으로, ‘입구(入寇)’는 ‘입새(入塞)’로, ‘남구(南寇)’는 ‘남침(南侵)’으로, ‘이(夷)’는 ‘이(彝)’로, ‘적(狄)’은 ‘적(敵)’ 등으로 고쳤다. 이외에 위애(違礙), 패류(悖謬), 저촉청정(抵觸淸廷) 및 사의설압(詞意蝶狎), 유괴아정(有乖雅正)의 서적은 모두 찬개(纂改), 산삭(刪削) 또는 금훼(禁毀)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전 훼서목(全燬書目)은 2,453종, 추훼서목(抽燬書目)은 402종, 소훼서관목(銷燬書版目)은 50종 그리고 소훼석각목(銷燬石刻目)은 20종이다.

금훼서적 관련문헌 중 『청대금서지건록서』에는 『사고전서』에 수록된 서적의 수와 맞먹는 3,000여 종 이상 약 6, 7만 부를 기술하고 있으며, 『금서총록』에서는 완전히 없애버린 2,453부, 일부를 없애버린 402부, 일부를 수정한 1,918부를 다루고 있다.

다섯째, 존목서목. 『사고전서』 편찬시 『존목』으로 편입된 서적은 『사고전서총목』의 통계에 의하면 총 6,793종이다. 이들은 조사하여 수장되지 않아 근대이후의 사회 변혁과 혼란으로 대부분 산실 망일되었다. 이에 편찬위원회는 ‘尊重歷史, 保存文獻’을 원칙으로 가능한 한 구제와 발굴에 힘쓰고 원관 영인이라는 방식으로 학계에 가장 신뢰할만한 판본 제공에 노력하였다. 1992년에 시작하여 1997년에 『사고전서존목총서』으로 완성되었으며, 존세(存世)된 『존목』 서적은 4,508종 1,200책으로 대륙 제로서사와 대만 장엄문화사업유한공사에서 각각 출판하였다.

『사고전서존목총서』의 체제와 순서 및 분류편목은 완전히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의 체제와 순서에 따랐으며, 『총목』 각편의 제요는 각 책의 뒷부분에 별도로 실어 검색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편찬위원회가 또 계속적으로 서적을 『사고

전서존목총서보편」으로 219종 99책으로 보충 편성하였다. 이상 두 중에 수록된 책은 4,727종으로 「사고전서」와 상호 보완이 되며 청대 건륭이전의 고대문헌전적의 전모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여섯째, 검색정보원. 「사고전서」 검색 정보원으로 대표적으로 색인을 들 수 있다. 색인은 「사고전서」의 책이 매우 방대하므로 인명, 서명, 편명 등의 색인을 이용하여 검색에 편리를 도모한 것이다. 그중 진내건의 「사고전서총목색인」은 대동서국에서 영인한 것으로 찬자의 인명을 기본으로 다시 성명, 필획 및 부수로 배열되어 검색 가능하다. 상해 고적출판사의 「사고전서목록색인」은 문연각「사고전서」 영인본과 한 세트로 2003년에 발행된 것으로 「사고전서목록표」가 주로 뒤에 「문연각사고전서분가도」와 서명저자종합색인이 있다. 목록표는 영인본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으며, 문연각「사고전서」 수록범위와 표출 저본의 저장위치를 표명하고 있다. 그중 책과 면은 영인본의 책과 면의 차례이다. 이는 영인본의 검색뿐만 아니라 현존의 사고전서관별 「사고전서」 원문 검색에도 참고가 된다.

4.2 전자매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방대한 「사고전서」 역시 CD-ROM과 온라인 전자매체로 전문제공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4.2.1 오프라인 전자매체

「사고전서」의 현대적 활용을 위하여 각계에서 여러 차례 영인되어 오다가 1990년대 들어 정보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문연각「사고전서」의 전부가 CD-ROM에 수록,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1997년 무한대학출판사(武漢大學出版社)에서 전자판 「사고전서」와 호남출판사의 「사고전서」 전자책이 구축되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과학기술의 발전과 진보로 「사고전서」 전자판 계획이 대만과 대륙에서 이루어지고 ‘중화인민공화국’95’국가전자출판물중점공정(中華人民共和國‘九五’

國家電子出版物重點工程)의 일환이 된 후 1999년 실현되었다.

즉, 홍콩 적지문화출판유한공사(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와 중문대학출판사(中文大學出版社)의 전자판 문연각『사고전서』가 1999년 5월 정식 출시된 것이다. 이는 상해인민출판사(上海人民出版社)와 적지문화출판유한공사가 합작하고 적지문화출판유한공사와 서동문컴퓨터기술개발유한공사(書同文電腦技術開發有限公司)가 전적으로 개발 제작한 것이다. 그 외 청화대학계산기과(清華大學計算機系), 북대방정전자유한공사(北大方正電子有限公司), 미연공사북경연구개발센터(微軟公司北京研究開發中心)의 기술개발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는 문연각『사고전서』를 저본으로 하였기에 ‘문연각사고전서전자판(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이라 부른다. 현대정보기술개발로 제작한 전자판 『사고전서』로서 운영환경은 ‘원문 및 표제검색판(原文及標題檢索版)’과 ‘원문 및 전문검색판(原文及全文檢索版)’의 두 종류가 있다. 전자는 CD 168장으로 원서의 그림 외에 다종의 검색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후자는 CD 175장으로 전문검색용이다.

이는 역대전적을 총괄하고 있는 『사고전서』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문헌데이터베이스로서 편리한 열람 외에 빠른 검색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연구수요에 따라 문헌분석, 귀납, 재조직 및 증산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4.2.2 온라인 전자매체

『사고전서』 온라인 전자매체로는 대만 상무인서관의 『POD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와 중국 Biadu(百度)의 『PDF 사고전서간명목록(四庫全書簡明目錄)』이 있고, 재선사신(在線查訊)의 ‘재선사고전서사신(在線四庫全書查訊)’이라는 온라인 『사고전서』 검색 데이터이스와 적지문화출판유한공사의 ‘문연각『사고전서』전자판 3.0’이 있다. 그중 상술의 이적문화출판유한공사의 ‘문연각『사고전서』전자판’은 1999년 12월에 구축된 『사고전서』 전자판이다. 2000년 1월 1일 원문과 전문의 검색판이 전격 출시되었고, 현재 3.0판으로 개인용 또는 학교 및 기관용으로 접속가능하다(<그림 1> 참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사고전서」의 검색과 활용에 대한 연구

첫째, 간단하고 편리한 전문검색기능. 최소 한 개의 글자라도 입력하면 즉각적인 전문검색이 실행되며, 단 몇 초 만에 모든 검색어를 탐색토록 구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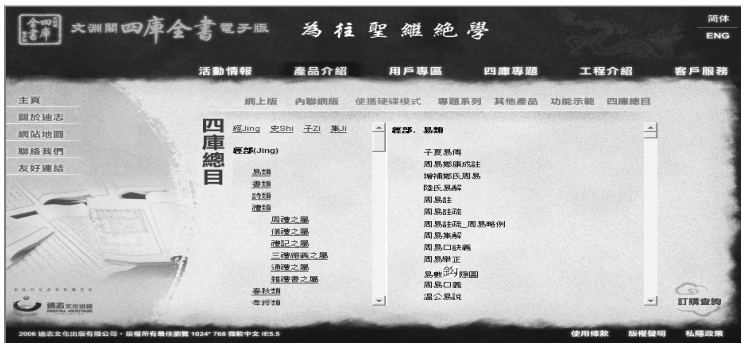
둘째, 그림자료의 재현. 전문검색 중 기존 원문상의 그림자료도 원문 해당면에 재현토록 구축하였다.

셋째, 검색도구. 최신 기능으로 13개의 표점부호 제공으로 이용자가 직접 선택 범위내에서 표점을 찍을 수 있어 연구 진행시 기록으로 활용가능하다.

넷째, 고(古)한자문제.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할 때 이체(體), 통가(通假), 간체와 번체(簡繁), 정오(正訛), 중국어와 일어(中日), 신구(新舊), 고금(古今), 형근(形近) 등과 같은 관련 기능을 제공하여 검색효율을 높였으며, 고자(古字)로 초사되었거나 전석(詮釋)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누락과 오해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섯째, 연계자전. 어려운 고자 부분의 경우 검색하고자하는 글자를 클릭하면 해당 글자의 뜻이 팝업되며, 동시에 해당 글자의 발음도 선택가능하다.

여섯째, 스마트한 설치 선택. 컴퓨터 하드 공간 상황에 따라 직접 ‘전문열람데이터베이스’ 또는 ‘전문검색 데이터베이스’의 설치 선택이 가능하다.



<그림 2> 문연각「사고전서」전자판의 사고총목

한편, 요종이(饒宗頤) 교수 주편(主編)의 ‘사고전자사전(四庫電子字典)’이 2011년 9월 15일 홍콩에서 출시되었다. 이 사고전자사전은 홍콩대학교요종이학술관(饒

宗頤學術館)과 적지문화출판유한공사 합작의 중요 문화사업으로 요종이학술관 주관 및 전문가들에 의하여 편찬된 것이다. 적지문화출판유한공사 측에서 기술지원 외에 홈페이지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4.3 한국의 검색과 활용

『사고전서』 검색과 활용을 위한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저술은 1) 『사고전서변증설(四庫全書辨證說)』, 2) 『무영전취진판(武英殿聚珍版)』, 3) 『서사고전서간명목록후(書四庫全書簡明目錄後)』, 4) 『서사고전서총목록후(書四庫全書總目後)』가 있다. 그중 『사고전서변증설』은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실려 있는 변증자료이며, 『무영전취진판』은 이덕무(李德懋)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32 청비록(淸脾錄)에 실려 있는 무영전취진판에 대한 설명자료이다. 한편, 『서사고전서간명목록후』는 윤행임(尹行愷)의 『석재고(碩齋稿)』 권15의 제발(題跋)이며, 『서사고전서총목록후』는 홍석주(洪奭周)의 『연천선생문집(淵泉先生文集)』 권25의 제발이다.

한편, 근래 들어 김쟁원이 1994년에 『(문연각)사고전서한글색인집』 출판에 이어 2004년에 『(속수)사고전서한글색인집』을 간행하였다. 이는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중국문화의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 정리한 문연각『사고전서』와 『속수사고전서』를 대상으로 정리한 색인집이다. 『사고전서』 내용을 전제로 하여 사분법(四分法)과 한자 획순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찾기 어려운 것을 서명과 저자명의 한글 자모순으로 구분하여 구성한 색인이다.

또한 전술의 적지문화출판유한공사의 문연각『사고전서』 전자판은 공주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등에서 검색 활용 가능하며, 신원데이터넷의 ‘Siku Quanshu’로 전문검색이 가능하다.

5. 결 언

곽백공(郭伯恭)은 「사고전서찬수고(四庫全書纂修考)」에서 「사고전서(四庫全書)」에 대하여 수록서적의 편향 및 불완전, 초본의 중복 및 오류천지, 교감소홀, 원저의 수정으로 진의상실, 그리고 ‘우금어징(寓禁於徵)’으로 고서의 망실이라 평가하고 있다. 반면, 장점으로 완전한 도서분류, 판본목록학의 연구, 교감학의 연구, 집일(輯佚) 작업 등의 활성화를 들고 있다. 또한 「사고전서」가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중요 전적들을 오늘날까지 전해주는 역대 최대 총서라는 점을 빼놓을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사고전서」의 간행과 역사적 보관 및 보존 단계와 18세기에서 현재까지의 다양한 「사고전서」 검색과 활용을 위한 역사적 문헌과 인쇄매체에서부터 전자매체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조사 고찰하였다.

첫째, 「사고전서」는 당시 정본 7부와 부분 1부가 정서되어 각 사거전서관에 보존되었으나 그중 문원각과 문종각 및 문회각「사고전서」는 전화로 소실 또는 훼손되었다. 문소각「사고전서」는 감숙성도서관에, 문진각「사고전서」는 중국국가도서관에, 그리고 문란각「사고전서」는 절강도서관에, 그리고 문연각의 「사고전서」는 대만 국립고궁박물원에 소장되어 있다. 한편, 문원각「사고전서」의 잔본(殘本)이 프랑스 퐁텐블로궁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나, 차후 상세조사가 요구된다.

둘째, 문락각「사고전서」 관련 「문란각지(文瀾閣志)」와 「문란각목(文瀾閣目)」, 가 간행되었고, 문진각「사고전서」 관련 「사고전서책수혈수표(四庫全書冊數頁數表)」와 「문진각별집류편목(文津閣別集類篇目)」이 간행되었다. 이들은 현전 「사고전서」의 상황과 서지정보 제공의 주요 출판물이라 할수 있다.

셋째, 18세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의 「사고전서」의 검색과 활용부분에서는 「사고전서」 목록류로 「사고전서총목제요」와 「사고전서간명목록」 및 「사고전서부존목록」을 살폈으며, 「사고전서」 수록서적의 철회와 보완에서는 사후에 「사고전서」에서 철회된 11종을 살피고, 사후 보완된 「사고전서회요」를 고찰하였다. 한편, 「사고전서」 미수서적 목록으로 「완위별장(宛委別藏)」의 간행배경과 수록문헌을 살폈다.

넷째, 20세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사고전서」 검색과 활용 부분은 인쇄매체와

전자매체로 구분하여 조사 고찰하였으며, 특히 적지문화출판유한공사의 문연각 『사고전서』 전자판 3.0판을 조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적 『사고전서』 검색과 활용 관련 문헌과 현재의 색인자료 및 온라인 전자매에 활용 현황을 살폈다.

본 연구가 이후 연구자의 『사고전서』 관련 연구를 위한 검색과 활용에 참고 및 일조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故宮博物院. 『圖書館概況』. <<http://www.bookinlife.net/product-273060.html>>.

金鎭源 編. 『(文淵閣)四庫全書한글索引集』. 서울: 태학사, 1994.

김쟁원 편. 『(續修)四庫全書한글索引集』. 서울:新星出版社, 2004.

台灣商務印書館. 『POD 四庫全書總目提要』. 1-5冊.

大方廣文化公益網編輯部. 『四庫全書薈要』. 寶語錄.

<<http://www.dfg.cn/big5/chengjing/jxkch/skhy.htm>>.

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http://www.skqs.com/>>.

樊文亞. “『鄭堂讀書記』文獻學價值初探樊文亞.” 『西北大學』 (2010).

<<http://cdmd.cnki.com.cn/Article/CDMD-10697-2010119043.htm>>.

四庫全書. <<http://zh.wikipedia.org/wiki/%E5%9B%9B%E5%BA%AB%E5%85%A8%E6%9B%B8>>.

『辭海』.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8.

書同文. <<http://www.unihan.com.cn/>>.

『線裝板文淵閣本欽定四庫全書』.

<<http://www.skbooks.net/zszhinfo/user/view.asp?id=106>>.

신원데이터넷. 『Siku Quanshu』. <<http://www.skqs.com/en/main.asp>>.

林儒行. “四庫全書重要目錄書及索引書.” 『圖書館學報』 第4期. 139-143.

王鵬凱. “紀昀撰『四庫全書總目』說之論析.”

<<http://www.lib.thu.edu.tw/newsletter/97-200910/page06.2.htm>>.

- 王茵. “國家圖書館所藏『四庫全書總目』稿本述略.” <http://www.dl-library.net.cn/publication/pub_content.php?id=168&flag=10>.
- 劉兆祐. 『中國目錄學』. 臺北: 五南, 2002.
- 在線查訊. 在線四庫全書查訊. <<http://4.supfree.net/>>.
- 陳旭東. “『四庫全書總目』較『四庫全書附存目録』書目增刪及原因探析.” 『山東圖書館學刊』第4期(2011). 97-102.
- 許璧. “四庫全書考.” 『東方學志』53권(1999). 243-63.
- 洪弇希. “筆寫本 永樂大典과 四庫全書의 書誌的 研究.” 碩士學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 1984.
- 胡露, 周錄祥. “四庫全書簡明目録淺論.” 『重慶社會科學』第5期(2002). <<http://www.docin.com/p-407702390.html>>.
- 黃愛平. “『四庫全書總目』与『四庫全書』.” 『史苑』第九期. <<http://www.qingstudy.com/data/articles/a04/123.html>>.
- Biadu. 『PDF 四庫全書簡明目録』.
- Château de Fontainebleau. <<http://www.musee-chateau-fontainebleau.fr/>>.
- Internet Archives Search. 『四庫全書薈要』. <<http://archive.org/search.php?query=subject%3A%22%E5%9B%9B%E5%BA%AB%E5%85%A8%E6%9B%B8%E8%96%88%E8%A6%81%22>>.

